

잃어버린 사유의 공간을 찾아서

7 지하철에서의 책읽기

정진국
미술평론가

연말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뒤숭숭하게 마련인가 보다. 요란한 광고 포스터들로 뒤덮인 파리의 지하철 통로를 오가자면 벌써 한해가 다 가버린 듯하다. 광고물들의 꿈같은 유혹만이 뒤숭숭한 분위기를 돋구는 것은 아니다. 부끄럽지만, 배가 고파요, 도와주세요, 하는 호소문을 가슴에 걸고 계단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들도 부쩍 늘었다. 동전을 그러 모으려는 약사들도 여느때보다 더 요란한 것 같다. 해가 바뀌고 있지만 세상은, 바뀌기는커녕 이렇게 뒷걸음질치거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머니 속의 '상상의 박물관'

런던을 오가는 지하철도 화재사고로 불통이고, 6번선은 일주일이나 되도록 복구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연례행사라도 같던 이즈음의 파업이 없다는 것에 고무된 듯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하다.

가장 다른 점이라면 버스나 전철에서 유난히 어떤 한 사람의 책이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겠다.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졌던 옛저녁에 근엄한 예식과 더불어 국가의 위인들만이 모셔지는 '팡테옹'에 이장된 앙드레 말로의 책이다. 문화부의 창설자요, 행동하는 지식인이요, 예술의 옹호자로서 추앙받는 그 사람의 웅변적인 발성법이 아편 중독 때문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다.

"특이한 염세주의로 비극을 그려냈으나 예술에 대해서만은 그토록 낙관적"이었다는 어느 필자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어맞는

것인지 어떤지도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갑자기 그의 책이 문자 그대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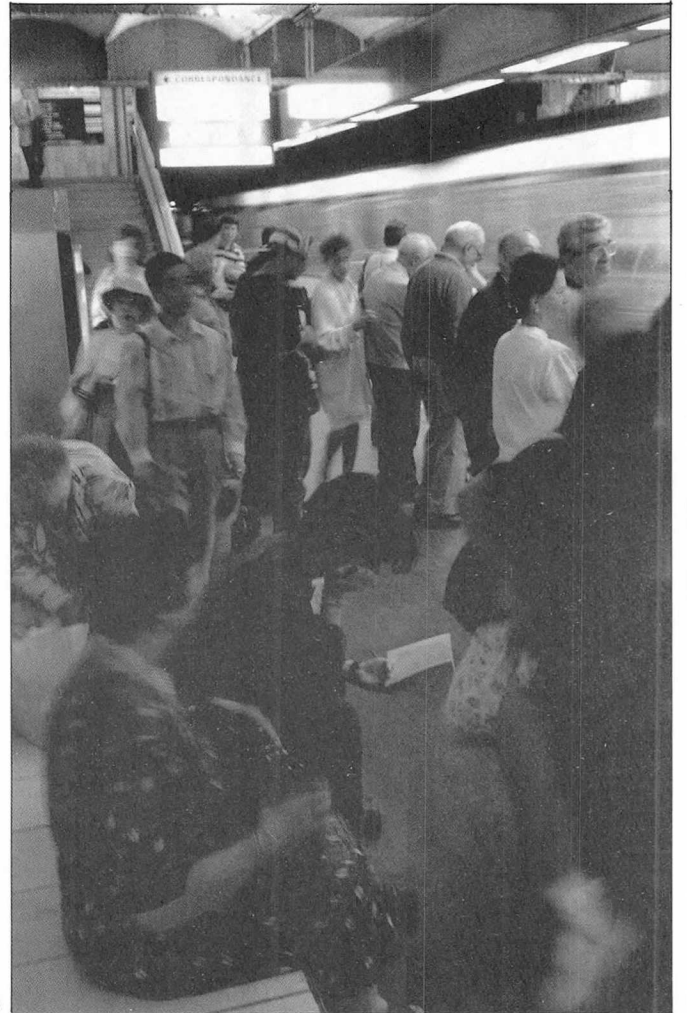
이 책 《상상의 박물관》의 포켓판을 소지하지 않는다면 파리시민으로서 무자격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생전 만화책이나 읽을 것 같은 건달도, 새침떼기 아가씨도, 심지어는 노숙하는 걸인조차도 그의 책을 뒤적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상상의 박물관》은 다시 한번 상상속에서나 빛을 발할 허구적인 박물관일 뿐이다. 우리가 우스개소리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는 있지만, 진실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누구의 말대로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하면 박물관이 허전하고, 반대로 박물관이 북적이면 교회가 텅 빈다고 할만도 하지만, 요즘처럼 그 모두가 썰렁해지는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어디 모여있는 것일까?

주머니속에 '상상의 박물관'을 지니고 있기에 그 모든 방문과 외출이 쓸데없는 일이 되버렸기 때문일까? 거의 성인(聖人)의 지위에 오른 작가의 생각에 공감하고자 그의 책을 들고다니며 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정부와 매스컴이 나서서 책장사 좋은 일이나 하고 있다며 이죽거리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당혹스럽기만 하다.

책의 행간에 빠져서

그러나 지하철 플랫폼에서 혹은 자리에 앉거나, 서서 그의 책자를 뒤적이고 있는



(사진/정진국)

사람들에게는 그의 장엄하게 떨리는 음성이 그 작은 책자로부터 울려나온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의, 저장의 목소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저 각자의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리듬에 따라 행간을 넘겨보내겠지만, 오늘 아침과 어제 저녁의 뉴스에서, 그리고 내일 밤의 토론에서 만천하에 울려 퍼지고, 울려 퍼질 그의 연설에 익숙해진 뒤로는, 그의 책에 내 목소리나 네 목소리가 겹쳐질 여지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저자의 목소리에 사로잡힐 무렵이면, 글씨와 부호가 유성영화의 녹음 장치로부터 풀려나오듯 우리의 감각을 엄습

할 즈음이면, 보이는 세계 또한 함께 사라져버린다.

이제 지하철 정거장에서 풍경은 없다. 한 장의 사진에 잡힌 풍경은, 독서에 빠져 저자의 목소리에 홀린 사람에게는 완전한 환각에 불과할 뿐이다. 바람소리와 풀냄새나는 풍경 대신에 우리를 에워싸던 구경거리들도 그저 무심한 종이장들이 되어 우리를 스쳐가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광고 포스터들이 기를 죽이고 그것들을 멍청한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잠시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만이 부릴 수 있는 마술이다.

주요취급간행물

- 신문: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의
- 시사: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N의
- 컴퓨터: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의 다수
- 패션: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의
- 기타: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의

세계의 신문·잡지



SINCE 1963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계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을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02) 735-5401/3
- FAX주문: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

국립중앙도서관 외국학술정보 확충 CD-ROM 네트 시스템으로 이용서비스 확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용문)은 외국의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대폭 확충했다. 지난 9월 최신 기종으로 전면 교체해 재개 실한 전자도서관(5층)은 CD-ROM 네트 시스템을 설치, 많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까지 확보된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CD-ROM 자료는 유럽의 예술관련 정보를 수록한 Art Index를 비롯해 영문도서 250만여권의 서지정보를 담은 <B&T Link>(월1회 정보갱신)와 <Book Review Digest>, 미국도서관협회 발행 도서 서평집을 담은 Choice on CD-ROM 등 38개 CD-ROM 타이틀을 갖춰 순수학술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535-4724)

‘출판발전 유공자’ 표창

문화체육부는 지난 11월26일 올해의 출판발전 유공자로 안재관(55·신영출판사 대표) 윤청광(54·동국출판사 대표)씨를 대통령상에 유광종(54·한국이공학사 대표) 오응근(62·지문사 대표)씨를 국무총리상에 각각 표창했다.

멀티미디어시대 저작권 대책 세미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는 지난 11월25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에서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문환 국민대 법대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환경변화>(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멀티미디어시대의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이진우, 변호사) 등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제4회 대산문학상 시상

대산재단(이사장 신창재)은 지난 11월29일 제4회 대산문학상 시상식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졌다. 지난 2년 동안 발표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올해 대산문학상의 수상자는 정현중 이호철 이강백 김미혜 실비아브라젤씨 등.

KBS <TV책방> 신설

KBS 제1TV는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독서프로그램 <TV 책방>을 신설했다. 신간 소개와 집중독서, 화제작 등 3코너로 구성.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사회와 최대원 출판평론가 등이 출연한다.

문예출판사 창립 30주년

문예출판사(대표 전병석)가 12월2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66년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서 출발한 문예출판사는 <데미안> <어린왕자> <갈매기의 꿈> 등 베스트셀러를 출간했고 80년대 말부터 외국문학과 인문·예술 등 학술서적을 꾸준히 발간, 30년 동안 800여 종의 양서를 펴냈다.

커다란 광고 이미지들은 그리스 신화가 화가를 경멸했던 것이 정당하다는 듯이, 헤라이트스의 운명은 당연지사라는 듯이 지하에서 더 용을 쓴다.

우리가 무서움을 타건 아니건, 지하에서는 모든 것들이 움츠러들고 긴장되며 위협적인 표정이 된다. 어둠이 불가분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본사양이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정답고 온화한 눈길마저도 어둠속에서는 이상한 광채를 발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광고 벽보의 선정적인 추파와 지하철의 굉음을, 그리고 행인들의 체취까지도 책을 붙잡고 그 행간 속에 빠져든 사람에게는 완전한 허상이다.

지하철이 정차할 때마다, 또 지하철을 벗어나 갑자기 눈부신 지상으로 뛰쳐나올 때마다, 그 행간은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밀리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그 행간은 오락가락 건너다니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소음과 추파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다. 행복한 전망중이다.

독서는 이렇게 우리의 귀를 틀어막는다. 저자의 목소리만 남기고서. 마치 음악이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감겨주고, 한쪽의 그림이 우리의 귀를 종국 세워놓는 것과는 달리, 책은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다.

상실을 메꿔주는 읽을거리

우리의 책갈피나 행간에 끼어드는 것은 꽃잎이 아니라 정거장의 이름들이다. 아마

섬표나 마침표에도 우리가 가야 할 정거장의 이름이 덧붙여질 것이다.

그러나 정거장에서 열차를 그냥 지나가버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발소리와 소란을 무시하고 독서에 빠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덧붙여지지 않는다. 그는 아주 머나먼 어느 곳에서 홀연히 나타난 사람처럼, 혹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이 그 자리에 머문다. 우리는 그의 몸과 그의 영혼까지도 그냥 뚫고 지나다닐 수 있다. 그의 육신은 책장속으로 녹아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에게 칼을 들이댄다 한들 아마 바나나처럼 집어삼키려 할 정도로, 독서라는 상상의 세계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구별이 없어진다.

사진 이미지의 세계 속에서는 움직이는 것들의 형체가 빛의 흐름이 되어 은하수처럼 반짝이듯이, 독서의 세계 속에서는 자리와 지형이 문제되지 않는다. 독서에 빠진 이 사람에게 플랫폼은 도서관의 낭하에 지나지 않고 쿵쾅거리는 바퀴소리는 쾅거루의 산책보다 더 가뿐하다.

딱딱한 시멘트와 플라스틱 의자는 가죽소파보다 한결 부드럽고 탄력있게 그의 엉덩이를 받쳐준다. 희미한 형광등이 문제일까? 달빛이나 반딧불 아래에서도 읽는다는 데.

어쨌든 그가 잃어버린 것은 행로와 행선지만은 아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현실이라는 소음일 뿐이다. 그리고 그 상실을 메꿔주는 것은 다름아닌 읽을거리다.



POINT-LINE

포인트 라인은 픽처북 스토리북 표지일러스트와 카렌다 카드 참고서 교과서 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며, 모든 광고와 표지 본문 디자인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 라인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입체 일러스트나 수채화, 유화, 지점토, 모래 그림 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 라인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들대상의 출판과 아동출판 기획을 자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

“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색다른 눈과 감각으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12인과 우수편집팀과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